

## 오치아이 소장 판비량론 필사본의 교정과 분석

Proofreading and Analysis of Ochiai's Manuscript of Pan-Bi-Ryang-Ron()

---

저자 (Authors)	김성철 Kim, Sung-Chul
출처 (Source)	<a href="#">불교학보 74</a> , 2016.3, 271-295(25 pages) <a href="#">BUL GYO HAK BO 74</a> , 2016.3, 271-295(25 pages)
발행처 (Publisher)	<a href="#">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a> Institute for Buddhist Culture
URL	<a href="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645786">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645786</a>
APA Style	김성철 (2016). 오치아이 소장 판비량론 필사본의 교정과 분석. 불교학보, 74, 271-295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3/31 13:43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오치아이 소장 『판비량론』 필사본의 교정과 분석

김성철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불교학부 교수

- I. 『판비량론』의 성격과 내용
- II. 오치아이 소장본의 전모와 교정
  - 1. 오치아이가 조사한 소장본의 전모
  - 2. 오치아이의 교정본에 대한 검토와 보완
- III. 오치아이 소장본의 내용 분석
  - 1. 앞부분 - 인식수단의 종류에 대한 논의
  - 2. 뒷부분 - 삼세실유의 문제에 대한 논의
- IV. 오치아이 소장본의 가치와 앞으로의 과제

## 〈한글요약〉

원효의 『판비량론』은 현장이 번역, 소개한 불교인식논리학[因明學] 이론에 근거하여 현장의 학문을 비판하고 재단한다는 점에서 원효의 저술 중에서 독특한 위상을 갖는다. 1967년 일본의 칸다키이치로가 소장했던 필사본의 일부가 공개되면서 『판비량론』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 본고에서는 2005년에 일본 학계에 처음 소개된 오치아이히로시가 소장한 『판비량론』 필사본의 해서체 교정본을 수정 보완하면서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먼저 교정본의 경우 오치아이가 판독하지 못한 글자는 ‘증(僧)’자임을 확인하였고, 오치아이가 판독에 확신을 갖지 못했던 ‘결(決)’자와 ‘환(還)’자를 기존의 필사본의 글자체와 대조하여 옳게 판독했음을 확인하였으며, 필사본 자체의 오사(誤寫) 몇 가지를 바로 잡았다. 오치아이 소장본은 이질적인 두 절을 이어 붙여 한 장으로 만든 것으로 앞부분은 『판비량론』 제6절의 도입부인데 ‘올바른 인식수단’으로 현량과 비량의 두 가지만 인정하는 진나(陳那)의 현비이량설(現比二量說)에 대한 외도의 비판과 관련된 논의가 실려 있고, 뒷부분에는 삼세실유설(三世實有說)을 둘러싼 설일체유부와 경량부의 논쟁과 관련된 논의가 실려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부분에 실린 현비이량설(現比二量說)을 둘러싼 논의의 경우 서두에 육(六)이라는 숫자가 씌어 있기에 『판비량론』 제6절의 논의임이 확실한데, 진나의 현비이량설을 비판하기 위해서 외도가 제시한 추론식의 주장명제에 사용된 ‘비량’의 범위에 대해 원효가 묻는 데에서 자료는 끝나지만, 이런 원효의 물음에 근거하여 이후에 어떤 내용이 논의가 이어졌는지 추정해 보았으며 이는 다음과 같다. 추론식에서 주장명제[宗]의 주어는 불교인식논리학 용어로 ‘소별(所別)’이라고 불리는데 현량과 비량 이외에 성언량 등도 별도의 인식수단이라고 생각하는 외도가 자신이 생각하는 ‘좁은 의미의 비량’을 염두에 두고 추론식을 작성한 것이라면 소별의 의미에 대해 토론하는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기에 ‘소별불극성(所別不極成)의 오류’에 빠진 추론이 될 것이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어지는 논의가 망실된 부분에 실려 있었을 것으로 추정해 보았다. 뒷부분에 실린 삼세실유설을 둘러싼 논의의 경우 분량도 적지만 논의의 말미에 해당하기에 주제도 드러나 있지 않아서 분석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세친의 『아비달마구사론』에서 중현의 『아비달마순정리론』으로 이어지는 경량부와 설일체유부 간의 삼세실유설 논쟁과 비교하면서 망실된 부분을 복원하여 논쟁을 되살려 보았다.

주제어 : 판비량론, 원효, 진나, 인명학, 현량, 비량, 삼세실유.

## I. 『판비량론』의 성격과 내용

원효(元曉, 617~686)의 저술 가운데 『판비량론(判比量論)』은 독특한 성격을 갖는다. 『대승기신론소』나 『금강삼매경론』과 같은 불전 주석서도 아니고, 『무량수경중요』나 『열반중요』와 같이 불전의 핵심을 요약한 저술도 아니다. 현장(玄奘, 602?~664)이 번역하여 처음 소개한 『인명입정리론(因明入正理論)』과 『인명정리문론(因明正理文論)』의 불교논리학 이론을 익힌 후 이를 응용하여 그 원류인 현장의 학문을 재단(裁斷)하고 비판하는 ‘논쟁의 책’이다. 그 제목이 의미하듯이 ‘현장의 학문과 관계된 갖가지 비량(比量)의 타당성을 비판적(批判的)으로 검토하는 독창적 논문집(論文集)’이다.<sup>1)</sup>

원효는 원래 현장의 학문을 흠모하여<sup>2)</sup> 의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당나라 유학을 시도하였는데 661년에 있었던 두 번째 시도에서<sup>3)</sup> 고분에서 숙박하다가 삼계유심(三界唯心)의 이치를 체득한 후 발길을 돌린다.<sup>4)</sup> 원효가 『판비량론』을 저술한 것은 그 후 만 10년이 지난 671년으로 원효의 학문이 충분히 무르익었을 나이인 55세 때의 일이었다.<sup>5)</sup> 그 동안 현장에 대한 흠모는 비판으로 변하였다. 『판비량론』에서 원효는 현장이 인도 유학 중 고안하여 명성을 날렸던 유식비량(唯識比量)과 대승불설논증(大乘佛說論證)에서 논리적 오류를 지적하며<sup>6)</sup> 현장이 번역 소개했던 신역불전에 실린 추론식의 타당성을 비판한다. 또, 『판비량론』 제11절에 등장하는 추론식에 사용된 ‘일향리(一向離)’의 의미에 대한 원효의 탁견은 현장의 수제자 규기(窺基, 632~682)<sup>7)</sup>를 포함한 그 당시 당(唐)의 인명가 모두의 해석을 능가한다.<sup>8)</sup>

1) 『판비량론』에 대해 개관하는 본고 제1장의 논의 중 많은 부분은 ‘김성철, 『원효의 판비량론 기초 연구』(서울: 지식산업사, 2003)’에 근거한다.

2) 『宋高僧傳』(『大正藏』50, p.730上), “嘗與湘法師入唐 慕奘三藏慈恩之門 厥緣既差 息心遊往.”

3) 『三國遺事』(『大正藏』49, p.994中).

4) 『宋高僧傳』(『大正藏』50, p.729上).

5) 『판비량론』의 산일본 가운데 ‘회향계가 실린 단편’ 말미에서 원효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합형(咸亨) 2년[671년], 즉 신미년 7월16일 행명사(行名寺)에 머물면서 붓을 잡아 거칠게 끌 마치다(着筆粗訖).” 김성철, 앞의 책, p.70.

6) 김성철, 앞의 책, pp.109-212.

7) 원명은 ‘기(基)’.

8) [宗] 所聞性因是不定攝. [因] 一向離故. [喻] 如共不定.’의 추론식에서 ‘一向離’의 의미에 대해 문비(文備)와 규기(窺基) 모두 ‘인(因)의 삼상(三相) 가운데 ‘한 가지 상(相)이 결여되어 있다.’고 해석했는데 원효는 이런 해석을 비판하면서 이는 ‘한 걸 같이[一向] 벗어남[離]’이라는 뜻으로 ‘개동불공(皆同不共)’과 같은 의미라고 주장한다. 현대 불교학의 안목으로 분석해 보

인명학(因明學) 이론 가운데 진나(陳那, Dignāga, 480~540경)의 9구인(九句因) 분류에서 ‘동품변무(同品遍無), 이품변무(異品遍無)’인 ‘제5구의 인(因)’이 부정인(不定因)임을 논증하고[제11절]<sup>9)</sup>, 현대논리학의 소거법(消去法)을 창안하여 상위결정(相違決定)의 인이 부정인임을 논증한다[제12절]<sup>10)</sup>. 유식학 이론의 경우 호법(護法, Dharmapāla, 530~561)이 주장했던 식(識)의 사분설(四分說)을 비판하고[제8절]<sup>11)</sup>, 제8식의 존재를 증명하는 추론식을 고안하며[제9절]<sup>12)</sup>, 아뢰야식과 공존하는 지각기관에 대해 논의하고[제10절]<sup>13)</sup>, 유식학의 오성각별설(五性各別說)을 비판하는 추론식이 반박 가능함을 보여준다[제13절]<sup>14)</sup>. 『판비량론』에서 원효는 창의적 논법으로 인명학이나 유식학과 관련된 불교 교학의 난제들을 능숙하게 해결하며 현장과 그 문하의 학문을 비판한다.

원효가 현장의 번역서를 통해 불교논리학을 익힌 후 현장의 학문을 비판했다는 것은 참으로 불가사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 이 시대의 학문에 빗대어 우화적으로 설명한다면, ‘독일에 유학하여 칸트철학을 배운 후 최고의 칸트학자로 명성을 날린 대(大) 학자[현장]가 한국으로 돌아와 칸트의 저술을 처음 번역하여 소개하면서 칸트철학의 붐을 크게 일으켰는데, 그 번역서를 통해 칸트철학을 홀로 습득한 주변국의 어떤 학자[원효]가 그 거장의 학문을 비판하였고 그 학문의 수준 역시 그를 능가했다.’는 얘기와 다를 게 없다.

『판비량론』이 원효의 저술 가운데 이렇게 독특한 위상을 갖는 것인데 전문은 망실되었다. 당의 혜소(惠沼, 650~714)가 쓴 『성유실론요의등(成唯識論了義燈)』, 신라의 태현(太賢, 8세기)이 저술한 『성유식론학기(成唯識論學記)』, 일본의 경우 선주(善珠, 724~797)의 『유식분량결(唯識分量決)』과 『인명론소명등초(因明論疏明燈抄)』 및 장준(藏俊, 1104~1180)의 『인명대소초(因明大疏抄)』 등 동아시아 학승들의 저술에 인용된 모습으로 그 편린을 찾을 수 있을 뿐이었다.

그러다가 1967년에 칸다키이치로(神田喜一郎)가 자신이 소장했던 『판비량론』 필사본 단편을 영인본으로 출간하면서 국내외 불교학계에서 『판비량론』에 대해 주목하기

---

면 원효의 해석이 옳음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김성철, 앞의 책, pp.324-326’을 참조하기 바람.

9) 김성철, 앞의 책, pp.295-326.

10) 앞의 책, pp.327-339.

11) 앞의 책, pp.215-233.

12) 앞의 책, pp.235-250.

13) 앞의 책, pp.251-280.

14) 앞의 책, pp.281-291.

시작하였다. 국내에서 2003년에 출간된 『원효의 판비량론 기초 연구』에는 ㉠ ‘칸다키 이치로가 영인본으로 출간한 3장짜리 단편’ 이외에 ㉡ ‘사카이우키치(酒井宇吉)이 소장했던 11행짜리 단편’, 그리고 ㉢ ‘회향계가 실린 단편’의 세 가지가 모두 실려 있다. 이런 필사본에, 앞에서 거론한 동아시아 학승들의 저술에 인용된 『판비량론』의 산일문(散逸文)까지 종합하여 『원효의 판비량론 기초 연구』에 실린 『판비량론』 단편들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15)</sup>

\* 세 가지 필사본

㉠ 칸다 소장본

제7절의 후반 일부 - 정토의 체는 드러나지 않는다는 조망에 대한 비판

제8절 - 호법의 ‘식의 4분설’에 대한 원효의 비판

제9절 - 제8식의 존재 증명

제10절 - 아뢰야식의 구유소의와 구유소의근에 대한 원효의 비판

제11절 - 구구인 중 제5구인이 부정인임을 논증함

제12절 - 상위결정인이 부정인임을 논증함

제13절 - 오성각별설에 대한 원효의 재비판

제14절 전반 일부 - 아집, 법집에 대한 논파와 관계된 논의

㉡ 사카이 소장본 - 쌍근은 유(類)는 같으나 상(相)은 다르다는 설에 대한 논파

㉢ 회향계가 실린 단편 - 회향계와 원효의 지어(識語)

\* 인용된 산일문

㉠ 만법유식을 논증하는 유식비량과 관계된 문장

㉡ 대승불설을 논증하는 승근비량과 관계된 문장

㉢ 다음과 같은 단편적인 문장들

[新羅 元曉法師 判量論云] 掌珍比量同廣百量等<sup>16)</sup>

[判比量云] 眞如眞智 離能所故 非量所及 緣藏識難<sup>17)</sup>

[判比量云] 報佛常住 離諸患故 猶如法身<sup>18)</sup>

15) 김성철, 앞의 책, pp.369-383. 참조.

16) 『成唯識論本文抄』(『大正藏』65, p.530下).

17) 『成唯識論學記』(『大日本續藏經』50, p.34中).

18) 『成唯識論學記』(『大日本續藏經』50, p.125中).

이후 『판비량론』에 대한 국내외의 연구는 자료적인 면에서 특별히 새로운 것이 없었는데, 2005년 일본의 국문학연구자료관(國文學研究資料館) 소속의 오치아이히로시(落合博志) 교수가 자신이 소장했던 『판비량론』의 필사본 한 장을 『고필(古筆)에의 유혹』<sup>19)</sup>이라는 책을 통해 소개하였고, 이는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자료였다.<sup>20)</sup>

## II. 오치아이 소장본의 전모와 교정

### 1. 오치아이이가 조사한 소장본의 전모

오치아이히로시는 『고필(古筆)에의 유혹』에 새로 발견된 『판비량론』 필사본 단편의 사진과 함께 서지정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sup>21)</sup> (설명 of 편의를 위해서 ①, ②, ③ …과 같이 번호를 붙인다.)

判比量論(① 東寺切<sup>22)</sup>)

《鑑定》 ② 감정증명서 「③ 弘法大師 ④ 陳那菩薩 [⑤ 琴山]

⑥ 뒷장, 붉은 색 ⑦ 간인(間印), ⑧ 九行切 庚午九 [⑨ 了意]

⑩ 《종이의 상태》 27.1×14.2cm 각 문장의 세로 길이: 21.3cm (글자를 적은 칸의 세로 길이 21.4cm, 가로 간격 1.6cm) ⑪ 茶毘紙(白麻紙)

《글쓴이라고 알려진 인물》 ⑫ 구우카이(空海)

《글을 쓴 시대》 ⑬ 나라(奈良)시대 (일설로는 신라시대)

《소장자》 ⑭ 오치아이히로시(落合博志)

19) 落合博志, 「61判比量論(東寺切)」, 『古筆への誘い』, 國文學研究資料館 編(東京: 三彌井書店, 2005), pp.134-135. 2004년 11월에 国文学研究資料館에서 開催된 特別展「古筆과 和歌」를 단행본으로 묶은 것. 함께 개최되었던 심포지엄「古筆切研究의 現在」에서 발표된 내용도 수록되어 있다. 古筆切의 연구의 의의, 재미, 귀중함, 아름다움을 전하는 책. <http://www.amazon.co.jp>(검색일자: 2016.2.2.)

20) 필자에게 본 자료를 전해주시는 한국과학기술대학교 정재영 교수님, 동국대 불교학술원 정승석 원장님, 동국대 불교학부 김호성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1) 落合博志, 앞의 책, pp.134-135.

22) 흥법대사(弘法大師) 구우카이의 초서체 글씨를 부르는 이름. 김성철, 앞의 책, p.31 각주12.

이를 다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이 필사본의 소장자는 ⑭ 오치아이히로시인데 글씨는 ⑩ 구우카이(空海, 774~835)의 ① ‘동사절(東寺切)’이라고 알려져 왔다. ⑤ 킨장(琴山)<sup>23)</sup> ⑨ 코히츠리요오이(古筆了意, 1751~1834)<sup>24)</sup>는 이 필사본의 필적을 감정한 사람인데 ② 감정증명서에 이 필사본의 제목을 ③ ‘홍법대사(弘法大師) ④ 진나보살(陳那菩薩)’이라고 적었고 ⑤ ‘킨장(琴山)’이라는 자신의 별호가 새겨진 도장을 찍어 이를 확인하였다. ⑫ 구우카이의 별호인 ③ ‘홍법대사’와 이 필사본 시작부의 첫 어구(語句)인 ④ ‘진나보살’로 제목으로 삼은 것이다. ⑥ 뒷장에는 붉은 색으로 광명황후(光明皇后, 701~760)의 소유물 표식인 내가사인(內家私印)의 도장 자국이 있는데 전부가 아니라 반 정도만 찍힌 ⑦ 간인(間印) 자국이다. 또 전체 문장은 총 ⑧ 9행으로 이루어져 있다. 칸다 소장본의 경우, 각 장의 세로 길이는 27.4cm, 가로는 56cm 정도이고 종이는 다비지(茶毘紙)였는데,<sup>25)</sup> 오치아이 소장본도 ⑪ 재질이 같았고 ⑩ 종이의 세로 길이(27.1cm) 역시 그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가로 길이의 경우 21.3cm로 그 절반도 안 된다. 이 글씨를 쓴 시기는 ⑬ 일본의 나라시대(729~749)로 추정되지만, 신라에서 제작되었다는 설도 있다.<sup>26)</sup>

그런데 오치아이가 소장한 필사본의 가로 길이가 원래의 절반도 안 되는 것은 어째서일까? 이어지는 오치아이의 설명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이 필사본은 서로 다른 필사본 두 장을 이어 붙여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총 9행 가운데 제5행과 제6행 사이의 종이가 끊어져 있으며, 그 앞과 뒤는 문맥도 이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六 陳那菩薩……”로 시작하는 앞부분의 제1, 2, 3, 4, 5행은 『판비량론』 제6절의 전반부이고, 뒷부분의 제6, 7, 8, 9행은 왼쪽 맨 아래에 “…… 七量”<sup>27)</sup>이라고 적혀 있기에 이와 다른 어떤 절의 후반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sup>28)</sup>

오치아이가 소장한 필사본과 그에 대한 해서체 복원본 전체를 소개하면 ‘그림1’ 및 ‘그림2’와 같다.

23) 킨장(琴山)은 고필감정가 코히츠리요오이(古筆了意)의 별호. 대대로 감정을 직업으로 하는 古筆의 宗家로서 근대에 이른다. <http://www.weblio.jp>(검색일자:2016.2.2.)

24) 위에 적은 킨장(琴山)의 본명.

25) 김성철, 앞의 책, p.33.

26) 이는 3장짜리 『판비량론』 필사본에서 발견된 각필(角筆) 자국 연구에 근거한 고바야시의 추정이다. 김성철, 앞의 책, pp.30-31. 참조.

27) 『판비량론』의 각 절 말미에는 ‘三量’, ‘五量’ 등과 같이 각 절에 등장하는 추론식(量)의 개수가 적혀 있다.

28) 落合博志, 앞의 책, p.1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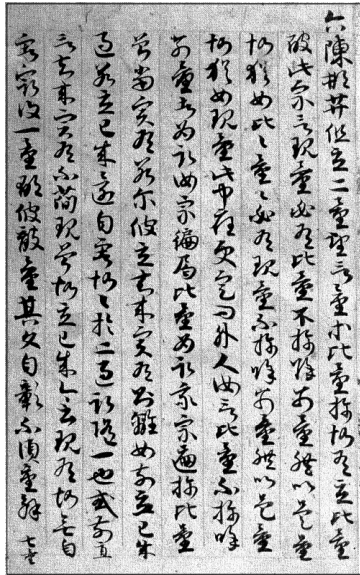


그림1 - 초서체 필사본

六陳那菩薩但立二量聖言量等比量攝故有立比量 1  
 破此宗言現量必有比量不攝餘別量体以是量 2  
 故猶如比々量々必有現量不攝餘別量体以是量 3  
 故猶如現量此中應決定問外人汝言比量不攝餘 4  
 別量者爲取汝宗徧局比量爲取我宗徧攝比量 5  
 ■當實有若尔彼立去來實有則離如前立已成 6  
 過若立已成還自害故々於二過取隨一也或前直 7  
 言去來實有不簡現 ■故立已成今云現有故無自 8  
 害最後一量顯彼敵量其文自彰不須重解 七量 9

그림2 - 오치아이의 교정본

‘그림2 - 오치아이의 교정본’에서 ‘々’ 기호는 반복을 의미하며, ‘■’ 표시는 복원하지 못한 문자다. ‘그림2’의 아랫줄의 번호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 필자가 각 행에 매긴 번호다. ‘그림2’에 표시하지는 않았지만 오치아이의 복원본에는 제4행, 10번째 글자인 ‘決’자와 제7행, 6번째 글자인 ‘還’자의 오른쪽 여백에 조그마케 물음표[?]를 달아 놓았다. 해서체로 복원은 했지만, 확신이 가지 않는다는 의미일 것이다.

## 2. 오치아이 교정본에 대한 검토와 보완

『판비량론』 오치아이 소장본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은 ㉠ 오치아이가 해서체로 복원한 내용 가운데 잘못된 것이 없는지 검토하고, ㉡ 글자 오른쪽에 물음표가 달려 있는 ‘決’자와 ‘還’자가 제대로 복원된 것인지 확인하며, ㉢ 반복을 의미하는 ‘々’ 기호를 그대로 풀어서 문맥이 통하는지 살피고, ㉣ 오치아이가 복원하지 못하고 ‘검은 네모(■)’로 표시한 글자가 무엇인지 추정하며, ㉤ 문맥으로 보아 애초에 잘못 필사된 글자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 먼저 오치아이가 해서체로 복원한 글자들 낱낱을 ‘칸다(神田) 소장본’이나 ‘사카이(酒井) 소장본’의 초서체 필사본 및 그에 대한 해서체 복원본<sup>29)</sup>과 대조, 비교해 보았

는데 판독하지 못한 글자는 두 개 있었고 이를 ‘검은 네모(■)’로 표시해 놓았으나 잘못 복원된 글자는 없었다.

㉞ 오른쪽에 물음표를 표시한 글자에서 오치아이 소장본의 ‘決’자는 칸다 소장본의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었고 ‘還’자는 사카이 소장본에 하나가 실려 있었는데 두 글자 모두 이 두 소장본의 글자체와 비교해 볼 때 올바른 복원이었다. 오치아이 소장본[O본]의 ‘決’자와 ‘還’자를 칸다 소장본[K본]과 사카이 소장본[S본]의 해당 글자와 병치하면 다음과 같다.



㉟ 반복을 의미하는 ‘々’ 기호로 대체한 “比々量々”이라는 문구의 경우 일반적으로 “比比量量”의 생략으로 봐야 하는데, 드물긴 하지만 고사본의 용례를 보면 “比量比量”으로 복원하는 것도 가능하다. 우선 “比比量量”으로 복원하여 앞뒤의 문장과 함께 기술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現量必有比量不攝餘別量体 以是量故 猶如比比 量量必有現量不攝餘別量体 以是量故 猶如現量<sup>30)</sup>

불교논리학 특유의 삼지작법의 추론식 두 가지가 이어진 문장인데 번역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주장[宗]: 현량은 반드시 비량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별도의 양체(量體)를 갖는다.

이유[因]: 양(量)이기 때문이다.

실례[喻]: 마치 비비(比比)와 같이.

주장[宗]: 양량(量量)은 반드시 현량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별도의 양체(量體)를 갖는다.

29) ‘김성철, 앞의 책, pp.60-70.’의 해서체 교정본.

30) 본고 앞의 ‘그림2 해서체 교정본’에서 제2, 3, 4행의 문장.

이유[因]: 양(量)이기 때문이다.

실례[喻]: 마치 현량과 같이.

그런데 어떤 불교논리학 문헌에서도 앞의 추론식의 ‘실례[喻]’로 제시된 ‘比比’나, 뒤의 추론식의 ‘주장[宗]’의 주어인 ‘量量’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는 없으며 문맥에도 어긋난다. 그런데 장준의 『인명대소초(因明大疏抄)』에서 취지가 이와 동일한 추론식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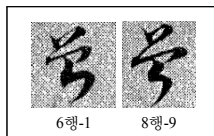
주장[宗]: 현량은 반드시 비량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별도의 양체(量體)를 갖는다.

이유[因]: 양(量)이기 때문이다.

실례[喻]: 마치 비량(比量)과 같이<sup>31)</sup>

이는 온전한 추론식이다. 따라서 오치하이 소장본의 “比々量々”은 “比比量量”이 아니라 “比量比量”이라고 풀어야 할 것이다.

① 그러면 오치하이 교정본에서 판독하지 못하여 ‘검은 네모(■)’로 표시한 글자는 무엇일까? ‘검은 네모’ 표시를 한 곳은 필사본에서 제6행의 첫 글자와 제8행의 9번째 글자의 두 가지인데, 다음에서 보듯이 두 글자는 같은 글자다.



그런데 다음에서 보듯이 두 곳 모두에 인접하여 ‘去來實有[과거와 미래가 실재한다.]’라는 문구가 있다.

6-1 ■ 當實有 若尔 彼立 去來實有

8-9 去來實有 不簡現 ■

또, 이 글자의 앞뒤에 붙어 있는 ‘當’자나 ‘現’자 모두 시간과 관계된 글자이기에 이 글자 역시 ‘시간’의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이런 추정을 토대로 원효의

31) 『因明大疏抄』(『大正藏』68, p.746上), “現量必有比量不攝餘別量體 以是量故 猶如比量”

저술에서 ‘曾當’이란 문구를 찾을 수 있었고<sup>32)</sup> ‘서법자전(書法字典)’에서 위의 글자가 ‘曾’의 초서체라는 점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 명필들이 썼던 ‘曾’자의 초서체 글씨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sup>33)</sup>



‘曾’의 초서체

㉔ 그런데 이상과 같은 분석에 근거하여 오치아이 소장본의 해서체 교정본을 완성할 경우 문제가 되는 글자가 하나 남는데 이는 제5행의 ‘편(徧)’자다. 앞뒤 문장과 함께 이를 인용하면서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問 外人 汝言 比量不攝餘別量者 爲取汝宗徧局比量 爲取我宗遍攝比量

외인에게 묻는다. 그대가 “비량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별도의 양”이라고 말한 것은, 그대 이론의 ‘편국(徧局) 비량’을 취한 것인가, 우리 이론의 ‘편섭(遍攝) 비량’을 취한 것인가?

먼저 여기서 말하는 ‘편섭 비량’이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논리학 용어는 아니지만,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두루 포함하는 비량’이라는 뜻이 된다. 그런데 여기서 제기되는 “그대 이론의 ‘편국 비량’을 취한 것인가, 우리 이론의 ‘편섭 비량’을 취한 것인가?”라는 물음이 양자택일의 방식이기에, 추정컨대 ‘편국 비량’은 ‘편섭 비량’과 상반된 의미를 가져야 할 것 같다. 그런데 ‘편국(徧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두루 하면서 국한된’이라는 뜻이 되어 전혀 의미가 통하지 않는다. 또 ‘편섭’은 칸다 소장의 『판비량론』은 물론이고 다른 한문 불전에서도 흔히 사용되는 용어이지만, 편국(徧局)은 이 문장 이외의 한문 불전 그 어디에도 용례가 없다. 그런데 ‘두인변의 두루 편(徧)’자를 ‘사람인변의 치우칠 편(徧)’자로 대체할 경우 여러 가지 난제가 쉽게 풀린다. 먼저 ‘편국(徧局) 비

32) 『大慧度經宗要』(『大正藏』33, p.71上); 『金剛三昧經論』(『大正藏』34, p.971上).

33) 左上으로부터 시계방향으로 徐伯清, 祝枝山, 王羲之, 孫過庭의 초서체 ‘曾’자다. ‘書法字典’, <http://www.shufazidian.com>(검색일자: 2016.2.3.)

량'이라고 수정을 한 후 '치우치게 국한된 비량'이라고 번역할 경우 '두루 포함하는 비량'이라고 번역되는 '편섭(遍攝) 비량'과 의미가 상반되기에 이 문구가 속한 양자택일 방식의 물음과 조화를 이룬다.

그런데 이 용어에서 필사본의 초서체 '편(徧)'자는 한자 초서체에 무지한 사람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해서체 '편(徧)'자와 모양이 거의 같기에 교정본의 '편(徧)'자가 오치아이의 오독일 수는 없다. 그러면 『판비량론』의 필사자(筆寫者)가 애초에 편국의 '徧'자를 '徧'자로 오사한 것일까?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가능성도 있다. 한문사전에서 보듯이 '徧'자는 대개 '遍'을 뜻하지만 '徧'자의 의미도 갖는다.<sup>34)</sup> 따라서 원래부터 원효가 '치우치게 국한된'이라는 의미에서 '편국(徧局)'이라고 기술했을 수도 있다. 어쨌든 '편국 비량'은 '치우치게 국한된 비량'이란 뜻을 가져야 한다. 그러면 '편'자의 현대적 용례에 맞추어 '徧局'을 '徧局'으로 교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는 내용과 맥락에 의거한 교정이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다시 상세하게 논의하겠다.

이상과 같은 분석을 반영하여 오치아이 소장 『판비량론』의 해서체 교정본을 수정, 보완하면 다음과 같다.

[앞부분] 六 陳那菩薩 但立二量 聖言量等 比量攝故 有立比量 破此宗言 現量必有 比量不攝 餘別量體 以是量故 猶如比量 比量必有 現量不攝 餘別量體 以是量故 猶如現量 此中應決定 問外人 汝言 比量不攝餘別量者 爲取汝宗 徧局比量 爲取我宗 遍攝比量 …

[뒷부분] … 曾當實有 若爾 彼立去來實有則離如前立已成過 若立已成還自害故 故於二過 取隨一也 或前直言 去來實有 不簡現曾故立已成 今云 現有故無自害 最後一量 顯彼敵量 其文自彰 不須重解 七量

### Ⅲ. 오치아이 소장본의 내용 분석

본고 제II장 제1절에서 소개한 오치아이의 조사 기록에서 보듯이 오치아이 소장의 『판비량론』 필사본은 서로 무관한 내용이 실린 두 장의 종이를 이어 붙여서 한 장으로 만든 것이기에 앞부분[제1행~제5행]과 뒷부분[제6~제9행]의 내용이 전혀 다르다. 먼저 앞부

34) '國際電腦漢字及異體字知識庫', <http://chardb.iis.sinica.edu.tw/meancompare/5fa7/504f>(검색일자: 2016.2.3.)

분을 보자.

## 1. 앞부분 - 인식수단의 종류에 대한 논의

오치아이 소장본 앞부분을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제6절. 진나 보살은 오직 두 가지 인식수단[量]만을 내세운다. 성언량 등은 비량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비량을 세워서 이런 주장을 논파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경우가 있다. 현량은 반드시 ‘비량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별도의 양체(量體)’를 갖는다. 인식수단이기 때문이다. 마치 비량과 같이. 비량은 반드시 ‘현량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별도의 양체(量體)’를 갖는다. 인식수단이기 때문이다. 마치 현량과 같이. 이 [두 가지 추론식] 중에서 결정해야 한다. 외인(外人)에게 묻는다. 그대는 “비량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별도의 양(量: 인식수단)”이라고 말하는데, 그대 이론의 ‘편국(偏局) 비량’을 취한 것인가, 우리 이론의 ‘편섭(遍攝) 비량’을 취한 것인가? ...<sup>35)</sup>

주지하듯이 진나(Dignāga)는 인명학, 즉 불교인식논리학의 기초를 확립한 인물이다. 진나의 불교인식논리학이 그 이전의 불교논리학이나 외도의 이론과 다른 점 가운데 하나는 현량(現量, Pratyakṣa)과 비량(比量, Anumāṇa)의 두 가지만 ‘올바른 인식수단(Pramāṇa)’으로 간주했다는 점이다. 진나 이전의 불교인식논리학에서는 현량과 비량 이외에 성언량(聖言量, Śabda) 또는 지교량(至教量, Buddhāgama)을 별도의 인식수단으로 간주하였고<sup>36)</sup> 니야야 학파의 경우는 현량과 비량과 성언량의 삼량(三量)에 비유량(比喩量, Upamāṇa)<sup>37)</sup>을 추가하여 4가지 인식수단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 밖에 ‘집작을 통한 인식’인 의준량(意准量)<sup>38)</sup>, ‘없음에 대한 인식’인 무체량(無體量)<sup>39)</sup>이 별개

35) 『판비량론』(오치아이 소장본), “六 陳那菩薩 但立二量 聖言量等 比量攝故 有立比量 破此宗言 現量必有 比量不攝 餘別量體 以是量故 猶如比量 比量必有 現量不攝 餘別量體 以是量故 猶如現量 此中應決定 問外人 汝言 比量不攝餘別量者 爲取汝宗 偏局比量 爲取我宗 遍攝比量 …”

36) 『因明入正理論疏』(『大正藏』44, p.95中), “古說或三 現量 比量 及聖教量 亦名正教及至教量 或名聲量 觀可信聲而比義故”

37) 『因明入正理論疏』(『大正藏』44, p.95中), “或立四量 加譬喩量 如不識野牛 言似家牛 方以喩顯故”

38) 『因明入正理論疏』(『大正藏』44, p.95中), “或立五量 加義准量 謂若法無我准知必無常 無常之法 必無我故”

의 인식수단으로 취급되기도 했다.

그런데 위의 인용문 서두에서 보듯이 진나는 인식수단은 오직 현량과 비량의 두 가지 뿐이며 성언량 등 다른 인식수단들은 비량에 포함된다고 주장하였다. 원효는 먼저 이를 소개한다. 이어서 원효는 이런 진나의 생각을 논파하기 위한 논적의 추론식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추론식1

[주장, 宗] 현량은 반드시 ‘비량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별도의 양체(量體)’를 갖는다.

[이유, 因] 인식수단이기 때문이다.

[실례, 喩] 마치 비량과 같이<sup>40)</sup>

#### 추론식2

[주장, 宗] 비량은 반드시 ‘현량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별도의 양체(量體)’를 갖는다.

[이유, 因] 인식수단이기 때문이다.

[실례, 喩] 마치 현량과 같이

원효는, 이 두 가지 추론식 중에 어느 하나를 논적이 선택해야 할 것[此中應決定]이라고 말한 다음에, ‘추론식1’의 주장명제의 술어(述語)에서 적힌 ‘비량’의 정체에 대해 논적에게 다음과 같이 묻는다.

그대는 “비량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별도의 양(量: 인식수단)”이라고 말하는데, 그대 이론의 ‘편국(偏局) 비량’을 취한 것인가, 우리 이론의 ‘편섭(遍攝) 비량’을 취한 것인가?

즉, 추론식1의 주장명제의 술어에 적힌 ‘비량’이 ‘치우치게 국한된 비량’인지, 아니면

39) 『因明入正理論疏』(『大正藏』44, p.95中), “或立六量 加無體量 入此室中見主不在 知所往處 如入鹿母堂不見芘芻 知所往處”

40) 앞에서 필사본의 ‘比比量量’을 ‘比量比量’으로 교정하면서 언급한 바 있지만 藏俊은 이 추론식이 현량의 제자인 문비(文備)가 저술한 『因明正理門論抄』에도 실려 있다고 말한다. 『因明大疏抄』(『大正藏』68, p.756上), “然准 備法師 理門抄 亦叙此量 彼云 外人爲明二量之外 別有餘量 立比量云 現量必有 比量不攝餘別量體 以是量故 猶如比量.” 『판비량론』 제11절에서도 원효는 문비의 말을 인용한 적이 있기에 이 추론식도 원효가 문비의 『인명정리문론초』에서 채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두루 포함하는 비량’인지 묻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성언량 등을 배제시킨 좁은 의미의 비량’인지, ‘성언량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비량’인지 묻는 것이다. 전자는 니야야와 같은 외도나 진나 이전의 불교의 논리학자들이 생각하던 비량이고[汝宗], 후자는 현비이량설(現比二量說)을 주장하는 진나 이후의 불교논리학자들이 생각하는 비량이다[我宗]. 그러면 원효는 어째서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일까? 필사본은 여기에서 끝나지만, 망실된 부분에서 어떤 논의가 이어졌을지 추정해 보자.

어떤 추론식이 타당하기 위해서는 논리적 오류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 추론식은 주장[宗], 이유[因], 실례[喩]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기에 논리적 오류 역시 ‘주장의 오류[似立宗]’, ‘이유의 오류[似因]’, ‘실례의 오류[似喩]’의 셋으로 대별된다. 『인명입정리론』에는 논리적 오류 33가지가 소개되어 있는데, 주장의 오류는 9가지로 그 가운데 능별불극성(能別不極成, *aprasiddha-viśeṣaṇa*)과 소별불극성(所別不極成, *aprasiddha-viśeṣya*) 그리고 자교상위(自教相違, *āgama-viruddha*)의 오류가 지금 분석하는 오치아이 소장본 앞부분의 논의와 유관할 것 같다. 어떤 추론식이 타당하기 위해서는 주장명제의 술어인 ‘능별(能別, *viśeṣaṇa*)’과 주어인 ‘소별(所別, *viśeṣa*)’ 모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極成, *prasiddha*]이어야 하며, 그 주장이 자기 학파에서 전승되는 가르침[自教, *āgama*]과 모순되지(相違, *viruddha*) 않아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차례대로 능별불극성, 소별불극성, 자교상위의 오류를 범한다. 먼저 능별불극성에 대한 『인명입정리론』의 설명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한정자[能別]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不極成] 예를 들어 불교도가 상가논사에 대하여 ‘음성은 소멸한다.’고 하는 것과 같다.<sup>41)</sup>

여기서 ‘음성은 소멸한다.’는 주장명제에서 주어인 ‘음성’은 ‘한정되는 것[소별]’이고 술어인 ‘소멸한다.’는 ‘한정자[능별]’다. 상가의 경우 ‘음성은 영원하다.’는 정상주론(聲常住論)을 주장하는데 한정자인 능별의 의미에 대해 토론하는 양측의 견해가 일치하지 않기에 이는 ‘한정자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능별불극성’의 주장명제가 되는 것이다. 원효가 ‘추론식1’에서 “현량은 반드시 ‘비량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별도의 양체(量體)’를 갖는다.”는 주장명제에서 술어[한정자]에 적힌 ‘비량’의 의미에 대해 물

41) 『因明入正理論』(『大正藏』32, p.11下), “能別不極成者如佛弟子對數論師立聲滅壞(*aprasiddhaviśeṣaṇo yathā baudhdhasya sāmkyam prati vināśī śabda iti*).” 산스크리트문은 필자 추가(이하 마찬가지).

있던 이유 역시 이런 능별불극성의 오류를 지적하려고 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 주장 명제에서 한정자, 즉 능별에 해당하는 것은 ‘비량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별도의 양체(量體)’라는 문구다. 그런데 이 문구에 적힌 ‘비량’의 범위에 대한 논적의 생각은 진나의 생각과 다르다. 그래서 원효는 ‘추론식1’에서 주장명제의 술어인 능별에 기술된 ‘비량’이 논적이 생각하는[汝宗] ‘편국(偏局) 비량’인지, 진나의 불교논리학[我宗]에서 말하는 ‘편섭(偏攝) 비량’인지 논적에게 묻는 것이다[問外人]. 앞 장에서 보았듯이 ‘편국 비량’이란 ‘치우치게 국한된 비량’이고, ‘편섭 비량’이란 ‘두루 포함하는 비량’이다. 진나가 생각하듯이 인식수단의 종류가 현량과 비량의 두 가지뿐이라면 성언량 등이 모두 비량에 포함되기에 비량의 범위가 넓어지고, 이와 달리 진나 이전의 불교논리거나 외도들이 생각하듯이 현량과 비량 이외에 성언량, 의준량 등을 별도의 인식수단으로 구분한다면 그런 틀 속에서 비량의 범위는 좁아질 것이다. 따라서 ‘편국 비량’은 논적의 이론에서 말하는 ‘범위가 좁은 비량’을 의미하고, ‘편섭 비량’은 진나의 이론에서 말하는 ‘범위가 넓은 비량’을 의미한다. 원효는 가상의 논적이 작성한 추론식에 사용된 ‘비량’의 의미를 묻는 것이다. 만약 그것이 ‘편국 비량’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 위에서 소개한 능별불극성의 오류를 범하게 된다. 주장명제의 술어가 진나 측에 의해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sup>42)</sup> 더 세밀하게 명명하면 능별일분불극성(能別一分不極成)의 오류로 ‘주장명제의 술어[能別] 전체가 아니라 그 가운데 일부분[一分]이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不極成] 오류’다. 그 일부분[一分]은 ‘비량’이다. 또 일부분 그 자체가 아니라 ‘비량의 범위’라는 일부분의 독특한 의미[差別]에 대해 서로 인정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보다 엄밀히 말하면 ‘능별일분차별불극성(能別一分差別不極成)’의 오류라고 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불교인식논리학에서는 그 정도로까지 논의를 진전시키지는 않는다.

또 혹시 논적이 ‘편섭 비량’을 염두에 두고 주장명제를 작성한 것이라면, 비량에 대한 자기 학파의 이론[自敎]에 어긋난[相違] 내용을 주장명제에 담고 있기에 ‘자교상위의 오류’<sup>43)</sup>를 범한다고 비판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은 ‘추론식1’에 대해 원효가 벌였을 수 있는 그 다음의 논의를 추정해 본 것이다. 그런데 이런 추정이 옳다면, 이어서 ‘추론식2’의 논리적 타당성도 검토되었을 것이다. ‘추론식2’의 경우 주장명제의 주어[所別]가 ‘비량’이고, 위에서 보았듯이 ‘비량’에 대한

42) 이상의 논의는 장준(藏俊)의 『因明大疏抄』(『大正藏』68, p.746上)에 인용된 ‘추론식1’ 직후에 이어지는 “疏准此量故云能別不成也.”라는 문장에 근거한 추정이다.

43) 『因明入正理論』(『大正藏』32, p.11中), “自敎相違者 如勝論師 立聲爲常(āgamaviruddho yathā vaiśeṣikasya nityaḥ śabda iti sādhyataḥ).”

논적과 진나의 생각이 다르기에 이는 소별불극성(所別不極成)의 오류를 범한 추론이 된다. 『인명입정리론』에서는 소별불극성에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한정되는 것[所別]이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不極成]은 예를 들어 상카논사가 불교도에 대해 ‘아뜨만은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sup>44)</sup>

‘아뜨만은 마음이다’라는 주장명제에서 주어[所別]인 아뜨만은 불교도가 인정하지 않는다. 불교의 특징적 교리 가운데 하나가 무아설(Anātmavāda)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논적이 ‘불교도가 인정하지 않는 아뜨만’을 주어로 삼아 불교도를 향해서 어떤 주장을 하게 되면 이런 주장은 ‘소별불극성의 오류’에 빠진 주장이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상기한 『판비량론』의 ‘추론식2’의 “비량은 반드시 ‘현량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별도의 양체(量體)’를 갖는다.”라는 주장명제의 경우도, 주어인 ‘비량’이 ‘편국 비량’이라면 소별불극성의 오류에 빠진다. 또 비량의 ‘독특한 의미(差別)’에 대한 생각이 다른 주장이기에, 보다 엄밀히 말하면 ‘소별차별불극성(所別差別不極成)의 오류’에 빠진 주장이 될 것이다. 이와 달리 ‘편섭 비량’이라면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자교상위의 오류’에 빠진다. 『판비량론』 제6절의 후반 망실부에 실려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논의들이다.

## 2. 뒷부분 - 삼세실유의 문제에 대한 논의

오치아이 소장본 뒷부분의 경우 전반부가 망실되었기에 그 주제가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증당실유(曾當實有)’나, ‘거래실유(去來實有)’ 등의 문구가 사용 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경량부 세친(世親, Vasubandhu, 4~5세기 경)의 『아비달마구사론』에서 설일체유부 중현(衆賢, 5세기 경)의 『아비달마순정리론』으로 이어졌던 삼세실유설(三世實有說) 논쟁과 관계된 내용이 실려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주지하듯이 설일체유부의 경우 ‘과거, 현재, 미래의 삼세가 실재한다.’고 본 반면, 경량부에서는 ‘현재만 실재할 뿐이고 과거와 미래는 실체가 없다.’고 보았다. 그렇다고 해서 경량부에서 과거와 미래가 아예 없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었다. 세친은 설일체유부의 반박을 예상하면서 과거와 미래의 존재에 대한 경량부의 이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44) 『因明入正理論』(『大正藏』32, p.11下), “所別不極成者 如數論師 對佛弟子 說我是思(aprasiddhaviśesy yathā sāmkyasya bauddham prati cetanā ātmeti)” 마지막 문구의 원문은 ‘我是思’. 窺基 疏에는 ‘說我是思’로 되어 있기에 위와 같이 교정한다.

그들[설일체유부]은 “세존께서 설하셨기 때문에 과거와 미래[去來]의 두 가지 시간대가 실재한다.”고 말하는데 우리들[경량부]도 역시 과거와 미래의 시간대가 존재한다고 말한다. 이는 다음과 같다. “과거의 시간대는 ‘일찍이 있던 것[曾有]’이어서 존재한다고 말하고, 미래는 ‘앞으로 있을 것[當有]’이니 결과를 갖는 원인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치에 의해서 과거와 미래가 있다고 설하는 것이지, 과거[去]와 미래[來]가 지금[現]과 같이 실재한다는 것이 아니다.<sup>45)</sup>

여기서 설일체유부 측에서 말하는 ‘세존께서 설하셨기 때문에’의 전거가 되는 경문은 삼세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는 『아비달마구사론』 분별수면품(分別隨眠品) 제5절 제2항에 실려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비구들이여 마땅히 알아라. 만일 과거의 색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다문의 성스러운 제자들이 과거의 색법을 ‘싫어하고 버리는 수행’을 부지런히 닦지 않아야 하리라. 과거의 색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문의 성스러운 제자들이 과거의 색법에 대해서 ‘싫어하고 버리는 수행’을 부지런히 닦아야 하느니라. 만일 미래의 색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다문의 성스러운 제자들이 미래의 색법을 ‘추구하거나 욕망하지 않는 수행’을 부지런히 닦지 않아야 하리라. 미래의 색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문의 성스러운 제자들이 미래의 색법에 대해서 ‘추구하거나 욕망하지 않는 수행’을 부지런히 닦아야 하느니라.<sup>46)</sup>

이는 『잡아함경』의 경문<sup>47)</sup>으로 설일체유부에서는 이 중에서 ‘과거의 색법이 존재하기 때문에’라거나 ‘미래의 색법이 존재하기 때문에’라는 구절에 근거하여 삼세실유설은 세존의 가르침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앞에 인용한 『아비달마구사론』의 경문에서 보듯이 경량부에서는 과거와 미래는 ‘일찍이 있던 것[曾有]’과 ‘앞으로 있을 것[當有]’으로서 존재하는 것이지, 실체(dravya)로서 실재하는 것은 아니라고<sup>48)</sup> 말하면서

45) 『阿毘達磨俱舍論』(『大正藏』29, p.105中), “彼所言世尊說故 有燈先無實有者 我等亦說有去來世 謂過去世曾有有名 未來當有 有果因故 依如是義說有去來 非謂去來如現實有.”

46) 『阿毘達磨俱舍論』(『大正藏』29, p.104中). “苾芻當知 若過去色非有 不應多聞聖弟子厭於過去色勤脩厭捨 以過去色是有故 應多聞聖弟子厭於過去色勤脩厭捨 若未來色非有 不應多聞聖弟子厭於未來色勤斷欣求 以未來色是有故 應多聞聖弟子厭於未來色勤斷欣求.”

47) 『雜阿含經』(『大正藏』2, p.20上).

48) 『阿毘達磨俱舍論』(『大正藏』29, p.105中), “na tu punar dravyataḥ(非謂去來如現實有).” 산스끄리트문은 필자 추가.

설일체유부의 삼세실유설을 비판한다.

이상과 같은 예비지식을 갖고 오치아이 소장본의 뒷부분을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각 문구마다 ①, ②, ③ … 등의 번호를 붙인다.)

… ① [과거와 미래]는 ‘일찍이 있던 것[曾]’과 ‘앞으로 있을 것[當]’으로서 실재한다[曾當實有]. ② 만일 그렇다면 그가 “과거와 미래가 실재한다[去來實有].”고 내세웠던 것은, 앞에서와 같은 ‘이미 성립된 것을 내세우는 오류[立已成過]<sup>49)</sup>에서 벗어난다. ③ 만일 ‘이미 성립된 것을 내세운다.’면 도리어 스스로를 해치기[自害] 때문이다. ④ 따라서 두 가지 오류 가운데 어느 한 가지를 취해야 한다. ⑤ 혹은 앞에서 “과거와 미래가 실재한다[去來實有].”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한 것이, “지금 있는 것[現]과 일찍이 있던 것[曾]을 제외시키지[簡]<sup>50)</sup> 않았기 때문에 이미 성립된 것을 내세우게 된다[立已成].”면, ⑥ 나[今]<sup>51)</sup>는 “지금[現]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해치는 일[自害]은 없다.”고 말하겠다. ⑦ 마지막 한 가지 추론식[量]<sup>52)</sup>은 저 논적의 추론식[量]을 나타낸다. 그 문장[의 뜻]이 스스로 뚜렷하니 다시 해석할 필요가 없다. ⑧ 일곱 가지 추론식[量].<sup>53)</sup>

삼세실유의 문제를 놓고 경량부와 설일체유부 간에 벌여졌을 논쟁에 원효가 개입하여 논쟁의 승부를 결정하는 내용이다. 『아비달마구사론』에서 『아비달마순정리론』으로 이어지는 삼세실유에 대한 논쟁에 근거하여 망실된 부분을 추정, 복원하여<sup>54)</sup> 삼세실유와 관련한 양 학파 간의 논쟁과 그에 대한 원효의 판정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경량부: 우리도 ‘과거와 미래가 존재한다.’고 말한다.]

49) 已成過는 清辯의 『大乘掌珍論』에서 자주 거론하는 ‘주장명제[宗]의 오류’ 중 하나다. 『大乘掌珍論』(『大正藏』30, p.268下; p.269下; p.271上 등).

50) 인명학 문헌에서 簡은 ‘방지함(遮)’을 의미한다. 김성철, 앞의 책, p.130. 참조.

51) 『관비량론』 제12절의 다음과 같은 문장에서 보듯이 원효는 자신의 고안을 제시할 때 ‘今’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관비량론』(오치아이 소장본), “今者通曰 違決之因 非正因攝 有等難故 如相違因 由此顯彼有不定過.”

52) 『관비량론』에서 ‘量’은 ‘宗, 因, 喻’로 구성된 추론식을 의미한다.

53) 『관비량론』(오치아이 소장본), “… 曾當實有 若爾 彼立去來實有則離如前立已成過 若立已成還自害故 故於二過 取隨一也 或前直言 去來實有 不簡現曾故立已成 今云 現有故無自害 最後一量 顯彼敵量 其文自彰 不須重解 七量.”

54) 추정, 복원한 내용은 [ ] 괄호 속에 넣었다.

[설일체유부: 그렇다면 ‘이미 성립된 것을 내세우는 오류’에 빠진다.]

[경량부: 우리가 ‘과거와 미래가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은 설일체유부에서 주장하듯이 실체로서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라] ① ‘일찍이 있던 것[曾]’과 ‘앞으로 있을 것[當]’으로서 존재한다는 말이다.

② 원효: 그렇다면 [경량부에서] 앞에서 내세웠던 ㉠ ‘과거와 미래가 실재한다.’는 주장 [宗]은 ‘이미 성립된 것을 내세우는 오류’에서 벗어난다. ③ ‘이미 성립된 것을 내세우는 오류’를 범하면 도리어 스스로를 해친다. ④ 따라서 두 가지 오류 가운데 어느 한 가지를 취해야 한다.

⑤ 설일체유부: [경량부에서] 과거와 미래가 존재한다고 말했지만, 지금 있는 것[現]과 일찍이 있던 것[曾]을 제외시키지[簡] 않았기에 ‘이미 성립된 것을 내세우는 오류’를 범한다.

⑥ 원효: [경량부에서 말하는 ‘일찍이 있던 것’은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지금 있는 것’을 인정하기에 ‘이미 성립된 것을 내세우는 오류’를 범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스스로를 해치는 일도 없다. ⑦ 마지막의 한 가지 추론식은 논적[인 설일체유부 측]이 고안한 것인데, 그 의미가 분명하기에 다시 해석하지 않는다. ⑧ 이 절(節)에서는 총 7가지 추론식이 소개되었다.

이 가운데 ④번 문장에서 말하는 ‘두 가지 오류’, ⑦번 문장 가운데 ‘마지막의 한 가지 추론식’ 그리고 ⑧번 문장의 ‘총 7가지 추론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절(節)에서 망실된 앞부분이 발견되어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다.

#### IV. 오치아이 소장본의 가치와 앞으로의 과제

오치아이가 소장한 『판비량론』 필사본은, 내용이 전혀 다른 두 부분을 이어서 한 장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앞부분인 제6절에서는 불교인식논리학에서 인정하는 인식수단의 종류를 논의의 소재로 삼았고, 몇 절인지 알 수 없는 뒷부분에는 설일체유부의 삼세실유설과 관계된 논의가 실려 있었다. 두 가지 모두 일부가 망실되었기에 논의의 전모를 알 수는 없지만, 『판비량론』에서 소재로 삼았던 불교교리의 종류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가치를 갖는다.

현존 『판비량론』 단편 가운데 분량이 가장 많은 ‘칸다 소장본’의 경우 제7절에서는

정도를 논의의 소재로 삼았고, 제8, 9, 10절의 소재는 유식학의 교리였으며, 제11절과 제12절에서 불교인식논리학의 난제로 소재가 바뀌었다가, 제13, 14절에서는 다시 유식학의 교리에 대해 논의한다. 즉, 각 절들이 소재별로 함께 묶여 있지 않았다. 오치아이 소장본의 앞부분인 제6절의 경우 불교인식논리학의 문제를 다루긴 하지만 소재가 동일한 제11, 12절에서 멀리 배치되어 있기에 원효가 『판비량론』을 저술하면서 각 절의 순서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이 더욱 확인된다. 또 본고 서두에서 소개했듯이 기존의 『판비량론』 단편들 가운데 ‘사카이 소장본’에 아비달마교학과 관계된 논의가 실려 있었는데, ‘오치아이 소장본’의 뒷부분에서도 설일체유부의 삼세실유설을 소재로 삼아 논의를 벌인다는 점에서 유식, 인명과 아울러 아비달마의 여러 문제들이 『판비량론』의 큰 주제 가운데 하나였다는 점 역시 확인된다.

이렇게 인명학의 오류론을 도구로 삼아 ‘인식수단의 종류’나 ‘삼세실유의 문제’에 대해 벌이는 논의는 자은 기(基)의 『인명입정리론소(因明入正理論疏)』는 물론이고, 이에 대한 일본 학승들의 주석서인 선주(善珠)의 『인명론소명등초(因明論疏明燈抄)』, 장준(藏俊)의 『인명대소초(因明大疏抄)』의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따라서 오치아이 소장본의 망실부의 내용에 대해 보다 정확히 추정하기 위해서는 이들 문헌에 실린 유관 논의에 대해 충분히 숙달한 후 이를 현존 자료의 논의와 대조하면서 그 의미에 대해 다시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연구는 후일로 미룬다.

## 〈참고문헌〉

### 1. 원전

- 『雜阿含經』(『大正藏』2)  
『阿毘達磨俱舍論』(『大正藏』29)  
『大乘掌珍論』(『大正藏』30)  
『因明入正理論』(『大正藏』32)  
『因明入正理論疏』(『大正藏』44)  
『三國遺事』(『大正藏』49)  
『宋高僧傳』(『大正藏』50)  
『成唯識論本文抄』(『大正藏』65)  
『因明大疏抄』(『大正藏』68)  
『成唯識論學記』(『大日本續藏經』50)

### 2. 단행본

김성철, 『원효의 판비량론 기초 연구』, 서울: 지식산업사, 2003.

### 3. 논문

落合博志, 「61判比量論(東寺切)」, 『古筆への誘い』, 國文學研究資料館 編, 東京: 三彌井書店, 2005, pp.134-135.

### 4. 기타

‘國際電腦漢字及異體字知識庫’, <http://chardb.iis.sinica.edu.tw/meancompare/5fa7/504f>(검

색일자: 2016.2.3.)

‘書法字典’, <http://www.shufazidian.com>(검색일자: 2016.2.3.)

‘weblio辭書’ <http://www.weblio.jp>(검색일자:2016.2.2.)

<http://www.amazon.co.jp>(검색일자: 2016.2.2.)

&lt;Abstracts&gt;

## Proofreading and Analysis of Ochiai's Manuscript of *Pan-Bi-Ryang-Ron*(判比量論)

Kim, Sung-Chul

In 2005, Japanese scholar Ochiai Hiroshi(落合博志) published a short report on a newly found manuscript of Won-Hyo's *Pan-Bi-Ryang-Ron*. It was a sheet of paper filled with cursive style Chinese characters. Ochiai restored the cursive style to the square style. But there are 2 characters that were not restored by Ochiai. Moreover we can find some scribal errors in the manuscript itself. In this study I identified the 2 characters and corrected the scribal errors. The 2 characters of cursive style have the same shape. I found that character in a 'Dictionary of Chinese Handwriting'. Obviously it is the cursive style of Chinese character '曾'. Besides, '比々量々' should be transliterated not as '比比量量' but as '比量比量'. Moreover in the context of debate the phrase '徧局 比量' should not mean a 'broad and localized inference' but a 'narrow and localized inference'. So it would be better to change the word '徧局' to '偏局'. On the basis of these corrections I analyzed the meaning of debate in this manuscript.

Ochiai's manuscript consists of 2 kinds of arguments. The one is on the problem of 'valid means of knowledge' and the other is on the problem of the reality of past, present and the future time. The subject of the former part is related with Dignāga's Buddhist Logic and the subject of the latter part is related with some arguments in *Abhidharmakośa*. I tried to restore the debates of the missing fragments in Ochiai's manuscript of *Pan-Bi-Ryang-Ron*.

### • Keywords

Won-Hyo, *Pan-Bi-Ryang-Ron*, Buddhist Logic, *Abhidharmakośa*, Ochiai, manuscript, Dignāga

논문접수일: 2016년 02월 12일, 심사완료일: 2016년 03월 01일,  
게재확정일: 2016년 03월 02일.